



세계석유산업 동향과 대응방향

Dr. E. M. Q. Roren

(WPC 회장, 노르웨이 DNV 부사장)

본고는 제16차 캘거리총회에서 WPC 회장으로 당선된 로렌박사가 지난 4월 한국을 방문 금년도 WPC 한국위원회 총회에 참석해서 행한 연설의 요지이다.

세계 석유수요는 1971년 2,400Mtoe에서 1995년에는 3,260Mtoe로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2010년 4,500Mtoe, 2020년 5,300Mtoe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국제유가는 변동이 매우 심하여 1997년 평균 유가는 약 19불/배럴이었고 1998년에는 12.5불/배럴로 저하되었으나 1999년에는 다시 18불/배럴로 상승하였다. 더욱이 최근 OPEC의 감산합의로 유가는 35불/배럴까지 상승하였다가 현재는 25불/배럴로 다시 떨어진 상태이다. OPEC은 유가 밴드제를 도입하여 유가가 22불/배럴 이하로 떨어질 경우 최대 500만배럴/일을 감산하도록 합의하여 한국과 같은 수입국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러나 실질 원유생산비는 미국 텍사스등 일부지역을 제외한 경우 대부분 8불/배럴 이하이기 때문에 고유가는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하여 북서 유럽의 정유사들의 정유마진은 큰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세계 석유업계는 규제완화,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합병 및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보조를 맞추어 우리나라에 적합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세계석유산업은 수익성과 재무구조의 강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는 새로운 도전의 시기를 맞고 있다. 이에 따라서 석유업계는 적극적인 개선 프로그램 도입, M&A, 수익성 향상, 중점사업에 집중, 규제완화, 제품 혁신 등으로 대처하고 있다.

메이저들이 합병하는 이유는 주식시장에서의 수익률 증대 요구에 만족시키고 사업의 다양화, 위험의 감소 및 재무구조를 강화시키며, 통합을 위한 수익의 개발, 기술과 조직면에서 규모의 경제 활용, 경험, 인프라 및 매장량으로부터 상호이익 창출 뿐만 아니라 시장지배력의 향상과 세계석유업계에서의 지위 상승 등을 꾀하기 위함이다.

세계석유산업은 이 세계의 사회 및 경제 발전의 근본으로서 석유로부터 이익을 창출해 내는 보다 강력한 역할이 필요하다.

석유는 앞으로도 수십년동안 주요한 에너지원의 자리를 유지할 것이며, OPEC의 힘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또한 세계석유업계는 경제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게 될 것이며 환경규제와 제제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또한 e-commerce 역시 석유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석유산업은 결코 사향산업이 아니지만 에너지산업은 새로운 요구에 적합하도록 변화될 것이다.

세계석유회의(World Petroleum Congress) 소식

- 콜롬비아, 카타르 신규가입, 회원국 59개국으로 증가
세계석유회의는 끊임없이 확대·발전하고 있는 세계 석유업계의 정보공유 요청이 증대되고 다양한 문제에 따른 협력을 증진할 상설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933년 영국 런던에서 설립되었다. 설립당시 유럽위주의 12개 국가를 회원국으로 출범한 WPC는 2000년 현재 세계 59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한 경영자, 과학자, 기술자 및 정부관리등 간의 정보교류의 장으로 성장하였으며 이들 회원국이 세계 석유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세계 원유생산량의 87.9% , 천연가스생산량의 88.8%를 생산하고 있으며 석유소비량의 83.5% , 세계 천연가스소비량의 85.3% 점유하고 온세계 정제능력의 89.2% 보유하고 있다.

특히, 매 3년마다 회원국을 순회하며 개최되는 WPC 정기총회에는 많은 비회원국들도 참가하여 업계의 최신 기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논문발표회에 참가하는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 WPC회원국(2000년 7월 현재)

Algeria, Angola, Argentina, Austria, Australia, Belgium, Bolivia, Brazil, Canada, China, Congo, Colombia, Cuba, Czech Rep, Denmark, Egypt, Finland, France, Croatia, Gabon, Germany, Hungary, India, Indonesia, Iran, Israel, Italy, Japan, Kazakstan, Korea, Kuwait, Libya, Mexico, Netherlands, Nigeria, Norway, Pakistan, Papua New Guinea, Peru, Philippines, Poland, Qatar, Romania, Russia, Saud Arabia, Slovenia, South Africa, Spain, Sweden, Tanzania, Turkey, UK, Ukraine, Uruguay, USA, Uzbekistan, Venezuela, Vitnam, Yugoslavia

브라질, 차기총회 개최준비 활발

- 2002년 9월 1일부터 5일까지 브라질 리오 데 자네이로에서 개최
- 관련 홈페이지 제작등 총회홍보 강화

제17차 WPC 정기총회는 브라질 리오 데 자네이로의 Riocentro에서 2002년 9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개최될 예정으로, 브라질 총회준비위원회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www.wpc2002.com)를 개설하는 등 벌써부터 총회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차기 총회개최지인 브라질의 리오 데 자네이로에서는 자국 석유생산량의 80%와 가스생산량의 50%가 생산되고 있다. 또한 브라질에서 가장 중요한 석유생산지로 자국 석유생산량의 70%에 이르는 하루 950천배럴을 생산하는 Campos 분지가 리오 북부해안의 심해에 있으며 Petrobras를 비롯한 주요석유회사가 이곳에 위치하고 있다.

제17차 WPC 정기총회기간동안에는 1982년부터 매 2년마다 개최되는 남미에서 가장 큰 석유산업전시회인 Rio Oil & Gas Expo and Conference가 함께 개최될 예정이다.

■ 브라질 석유 산업

브라질의 석유독점규제는 1997년 8월 해제되어 약 5백만㎡에 이르는 퇴적분지가 전세계 기업에게 개방되어 향후 10년간 약 500억불에 이르는 국내외의 투자가 브라질 E&P 사업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억6천만명에 달하는 인구와 함께 브라질은 하루 약 1.8백만배럴의 원유를 소비한다. 하루 최대 정제능력은 1.8백만배럴로 평균 정제량은 85%에 달한다. 브라질 석유시장은 항상 개방되어 있어 28,000개의 Service stations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세 개의 석유화학단지에서 한해 2.8백만톤의 에탄올을 생산하여 이부분에서 세계 11위를 규모를 갖고 있다. ☺